

# 인제강동 같이남박놀이

— 제14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

때: 1996.9.19 ▶ 9.20

곳: 철원군 공설운동장



인 제 군  
인제문화원

## 배 경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90%가 산림지역으로 옛부터 인제 뗏목, 솥굽기와 같은 산림문화가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 “인제조경동 갈이남박 놀이”는 깊은 산중에서 나무를 이용 해 옛부터 식생활의 필수품이었던 함지, 쌀남박, 접시등 목기류를 만들어 생계를 영유하여 왔다고 한다. 현재 기린면에 아침갈이, 적갈이, 대학동에서 많이 만들어 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소재로 “인제 조경동 갈이남박 놀이”를 만들었던 옛노인의 고증을 들어 인제 문화원과 조사를 통해 그 원형을 재현하게 되었다.

## 발굴 · 재현

인제조경동 갈이남박 놀이는 우리조상들이 상부상조하고 고도의 협동정신이 요구될뿐더러 생계의 한 수단으로 슬기와 애환이 담긴 한 장면을 재현하는 민속 놀이로서 이 고장 노인들의 고증을 얻어 그 원형을 재현하게 되었다.

## 고증을 해주신 분들

인제군 기린면 방동 2리	이 장 수
인제군 기린면 북 3 리	이 병 성
인제군 인제읍 상동 3리	손 용 인

## 출연과정

- 작품 구성은 입산, 벌목 및 운반작업, 같이작업, 한마당놀이로 구성되고 있다.

### 제1과장: 입산

각종 도구를 준비하여 좋은 재료의 나무가 많은 깊은 산중으로 입산한다.

### 제2과장: 벌목 및 운반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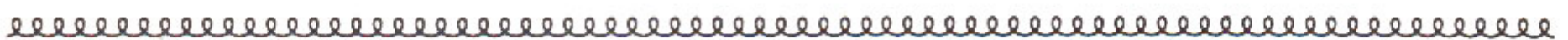
재질이 좋은 피나무, 박달나무 등의 활엽수를 벌목하여 기본적인 겉투리 작업을 한다음 산판에서 끌어내려 목도 운반하여 톱질작업을 한다.

### 제3과장: 같이작업

벌목하여 톱질한 나무를 같이들을 이용해서 남박을 만들고 다른 한 쪽에서는 세림들을 설치 건조작업을 한다.

### 제4과장: 한마당 놀이

여러 사람이 힘든 협동작업 과정에서 무사히 같이남박을 만든 기쁨을 나누는 뜻에서 기수를 중심으로 각자의 소품을 들고 농악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춘다.



# 출연자

- ★ 출연인원 : 60 명
- ★ 연출지도 : 이 만 철
- ★ 선 소리 : 박 해 순

성 명	연 령	배 역	성 명	연 령	배 역	성 명	연 령	배 역
박해순	73	선소리	이명희	22	물레꾼	주익록	24	톱질꾼
김상혁	74	농 악	손연록	23	"	전현수	23	"
이상주	55	"	이상식	23	"	서승택	23	"
이종명	64	"	장인환	22	"	유장식	22	"
이만식	67	"	천희옥	24	"	박세홍	22	"
김유근	60	"	정신철	23	"	김도형	24	"
허만영	63	"	임찬학	24	"	최진용	23	다듬이작업
남궁작	59	"	이준영	24	"	임성권	24	"
김범수	57	겉투리작업	예영수	22	"	신종만	23	"
이수영	64	"	최종환	23	"	이태진	22	"
박기영	72	"	한성호	23	"	이태규	23	"
이동선	73	"	이정모	22	"	진장일	24	"
이동준	71	"	박준영	22	"	박현수	24	"
선수영	70	목상	김성남	23	"	전옥연	65	아낙네
이종성	67	대목	임 호	23	"	김은순	64	"
최영준	71	"	김용환	23	"	장옥자	56	"
조성구	72	기수	이상현	22	"			
박정근	24	"	박형주	23	"			
명진노	23	"	이재열	23	"			
지명연	24	물레꾼	김상선	22	"			
임상호	23	"	오진성	24	톱질꾼			
이창기	23	"	이대성	22	"			

여기메가  
옛날 옛날  
이태조가  
산간문화  
기린방동  
주종을  
웅장하게  
박달나무  
수백종에  
십리안에  
물도 좋고  
가리산판  
동남서북  
아름드리  
피나무한대  
허리통찰과  
또한대찰과  
오밀조밀  
보기도 좋고  
숨씨자랑  
박달을 적어  
세균으로  
암줄에는  
스르륵스르륵  
구름같은  
대항지파서  
뚝뚝이 깎아  
잔대는 깎아  
삼색실과  
외적내탕  
무릎 꿇고  
두손들어  
백만사가  
부귀공명  
사이사이가  
한잔함이  
한잔주고  
인생일장  
노세노세

어디메뇨  
아주옛날  
등극하여  
발발하여  
조경동에  
이루어서  
자관수목  
물참나무  
남으로다  
오리나무  
경치좋은  
차려놓고  
올려드니  
피나무가  
비어다가  
이방박파고  
촉대를 깎아  
목기를 깎아  
쓰기도 좋다  
아낄손가  
궁글대하고  
줄을드려  
두사람이  
돌려주어  
대채반에  
맷돌질하고  
국강이하고  
잔받침하고  
접시에 담아  
진실하고  
분향재배  
뱀아놓고  
여이형통  
영화로다  
꽃이로다  
어찌하고  
한잔드니  
춘몽인데  
잠어노세

두메산골  
오백년이  
국태민안  
목기시대  
산으로는  
굴굴마다  
희영칭칭  
칭칭나무  
느티나무  
둥둥올려  
피나무아래  
일자로기로  
넘어간다  
와자진근  
밀둥은찰과  
결둥은찰과  
연꽃같은  
한광우리  
우리나라  
엄나무찰과  
피나무껍질  
암줄숯줄  
숯줄에는  
대목땀이  
허공에  
밤박을 깎아  
촉대는 깎아  
오곡백과  
홍동백서  
도포에다  
귀는같은  
신위전에  
영화로다  
산은푸르고  
산도 좋고  
두사람이  
일배일배  
아니놓고  
늘어지면

인제로다  
활신님은  
시화연풍  
없었는데  
방태산이  
살피보니  
늘어졌네  
자장나무  
참피나무  
굴참나무  
자리잡아  
찍는소리  
넘어간다  
다넘어간다  
대항지파고  
뚝뚝이 깎고  
잔대를 깎아  
담아놓으니  
조상님께  
장를을하고  
젓을싸서  
매어놓고  
다섯사람  
갈을대니  
안개피듯  
돌가리하고  
황촉불기고  
무르익어  
좌포우회  
정관하고  
참쌀술을  
배례하니  
영화로다  
돌은희데  
물도 좋은데  
마주앉아  
두일배와  
무엇하리  
못노니라

**MEMO**

---

**MEMO**

---

